

2023년 3월 18-19일 주말예배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3.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사도행전 2장 42-47절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 . .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너무 교회중심적인 생각’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 흩어지는 것인가?”

본래 교회라는 뜻의 단어인 ‘에클레시아’는 ‘회중’ 즉, 모이는 공동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나 위의 말씀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목적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공동체는 모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꿈꾸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떡을 떼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 .

로버트 콜만은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얼마나 집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들을 성별(聖別)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감독(supervision)하시고, 교정하심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 중에 하나는 선교 공동체, 즉 사역 공동체를 만드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남긴 열매는 12명의 사람에 불과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교회 중심적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선교 중심적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며 사역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때 만나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며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청년들과 함께 농촌의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리더의 경험이 사역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영월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교회학교 교사도 없는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 처한 교회들의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찾아온 열정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교사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청년들과 농촌 봉사하는 농활 팀, 의료진들과 함께 주민들을 돌보는 의료 봉사,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교회학교 팀, 그리고 마을을 돌며 전도하는 전도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역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역지를 떠나는 농촌교회의 특성상, 목회자들의 잣은 이동으로 인해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일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의료선교, 주일학교, 농촌봉사, 노방전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공휴일을 이용해 선교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역이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주일에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 주일마다 청년들을 파송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장애가 되었습니다. 매주 영월까지 가기 위해서는 만나교회의 핵심적인 청년들이 본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를 참석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물론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인도하는 청년예배에는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저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제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의 예배 인원이 늘었는가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의 본질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 의해 평가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본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검증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말입니다.

마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처럼 말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청년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나, 우리 청년들이 영월에서 선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만일 이러한 평가와 사람의 판단이 제 목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저는 교회의 목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사역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나교회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MMP 교회로 교인들이 파송되고, In & Ou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근처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를 꿈꾸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의 즐거움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래학자요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 조직이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는 것.”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바뀐다는 것은, 만나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톰 레이너가 쓴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을 보면, 진정한 사명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10년 가까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쇠락해 온 한 교회를 컨설팅한 적이 있다. 이 교회는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원했다.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은 인구수가 상당했다. 교회 시설도 매우 훌륭했고, 재정적으로도 건전했다. 교회 안에 특별한 갈등이나 분쟁도 없었다. 이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처럼 디지털과 서면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문서를 요청했다. 그중 한 문서가 특히 눈에 띄었다. 제목은 ‘교회 시설 사용을 위한 정책과 절차’였다. 무려 6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농담이 아니다!

이 두툼한 규정집을 검토하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이 더 없이 분명해졌다.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하나같이 지역 주민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법이었다.

물론 교회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 규정집은 너무 심했다. 이 문서는 교회의 초점이 내부로만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외부인들을 위한 규칙과 규제가 너무나 많았다. 이 규정집은 외부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

“나는 플로리다 해변을 사랑한다. 평생 동안 플로리다 북서부와 남서부의 해변을 수도 없이 갔다. 백색의 모래와 에메랄드빛 물이 반짝이는 플로리다 해변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경관 중 하나다. 해변은 정교한 생태계의 일부다. 많은 해변이 지속적인 침식 상태에 있다. 대개 침식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해변 주민들은 점진적인 침식에 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해변에 들이닥치면 침식이 거대하고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면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비상 모드에 돌입한다. 재산 피해를 평가하고 피해 복구를 진행한 뒤에는 해변 복구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많은 교회가 외적인 초점을 상실하면서 점진적인 침식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회가 스스로를 돌보는데 시간과 인력, 활동, 돈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교회 리더와 교인들이 지역 사회에 쓴는 시간과 노력을 어느 날 갑자기 전부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다. 교회의 안주가 지상명령을 대신하는 과정이 매년 조금씩 진행되었다. 교회가 내부로 초점을 돌리면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끊어졌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첫 교회를 향해 외부에 초점을 맞추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다. 즉 도시 내부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향하라고 한결같이 외부에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하셨다.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명령을 잘 수행했다. 그들은 철저히 외부의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벌어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교회는 안전지대의 가장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긴박감을 주시는 동시에 지상명령의 다음 단계를 촉발시키기 위해 박해를 허락하셨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오늘날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온 세상에 긴박감을 일으키셨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다. … 대부분의 경우 외적인 초점의 침식은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침식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침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소위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예수님의 자꾸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만 가지는 것이면 참겠는데, 왜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명쾌한 사명 선언문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우매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한 “의식의 전환” (paradigm shift)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중심적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면,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중심적 선교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있는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족들을 위해 선교하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고, 깨끗하게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더러워질까봐 히피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새롭게 건축한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에 깔린 깨끗한 카펫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카펫을 당장 거두어 치우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쓸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가 이렇게 네 개의 ‘M’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능력을 상실하고 소멸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Mission Church - Ministry Church - Maintenance Church - Museum Church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건물을 유지하거나 건물 안에 존재하는 교인들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만나교회의 변화를 시도했던 리모델링 작업은 철저하게 ‘선교 중심적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임 반기를 원하는 교회가 건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편안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책임 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교회가 교회 중심적이거나 목회자 중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건물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된 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목회자들의 방이 사라지고 공유사무실로 바뀌었으며, 담임목사의 방은 아주 작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장로님들의 방이 ‘회의실’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만나교회는 이러한 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무실과 종직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교회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옮겼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곳들의 접근성이 좋아 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간 파구스’를 만들었을 때, YMCA와 함께 문화센터와 체육관을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헌금으로 건축하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간 파구스의 체육시설을 개방한 이유는 그리로 매일 매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을 디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탄천을 끼고,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 있는 1층에 카페와 야외 발코니를 만들게 된 것도 ‘선교중심적’ 목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만나교회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탄천을 걷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만나교회의 건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본당 앞 교육관과 교회 1층은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리모델링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오면 “조용히 해라! 양전히 있어라!”라고 했지만, “이제 교회 와서 마음껏 뛰어 놀아라! 학교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안고 교회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장소가 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고는 언제나 교회 중심적이었고 어른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구조 (Old Paradigm)

하나님 → 교회 → 세상

*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가 없으며, 교회는 세상과 유리되어 있다.

기존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교지였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조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방어적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죄악 된 공동체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은, 우리가 뛰어들이야 하는 구체적인 선교현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던 ‘9 to 5’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는 ‘Lynn’ 목사님이 있습니다. 의사로 봉직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중직을 가지고 함께 목회하는 사역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풀타임 목회를 하시게 되나요?”

그 목사님의 대답이 바로 ‘9 to 5’였습니다.

그 분이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에 만나는 이슬람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요, 그 만남의 장소가 교회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능한 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권면하여 왔습니다. 잘못하면 세속화 되고 자신의 신앙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세상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상실한 신앙인들로 게토화 됩니다.

교회생활을 잘 할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던 최신희 선수가 2005년의 세계의 복서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선수를 설교시간에 인용하고 소개했을까요?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끓었기 때문입니다.

황우석교수의 수치가 왜 불교계의 수치가 됩니까? 그가 올해의 자랑스러운 불교인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의 김성국 목사가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쓴 글이 인상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었던 주례사를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를 위한 주례사 중에 아직까지 생각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김구 선생님이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답니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결혼 당사자들이나 축하객 모두 너무 좋아했을 짧은 주례사였습니다.

짧아서 모두 좋아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적잖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오래된 주례사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보고 누구를 떠올릴까’ 하며 궁금해진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의 책 제목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이 선교적 관점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0-22에 보면 사도바울의 선교적 방법론이 나옵니다.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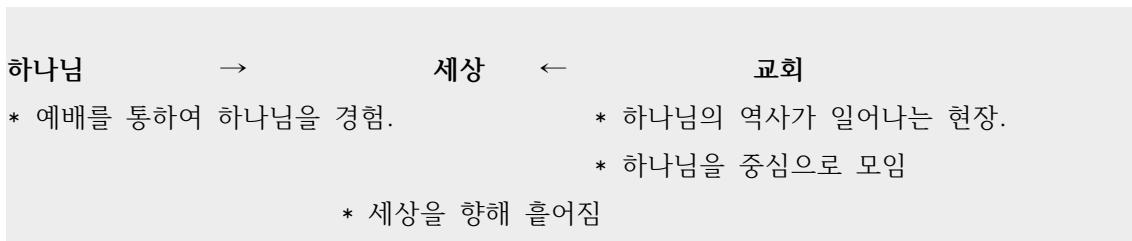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당시의 교회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을 때, 사도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어떤 이는 사람을 부리는 자로, 어떤 이는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사도바울에게 이러한 것은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일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에 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조 (Old Paradigm)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가 뛰어들어야 할 사역의 장(場)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출간한 [온라인 교회]에서 제가 썼던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감합니다.

만나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미디어교회를 만들어 건물이 아닌 곳에서 미디어로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힘써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서 기인한다.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건물에 한정된 교회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즉 목회적 영역과 신앙의 패턴이 변하기 때문이다.

(생략)

만나교회의 ‘미디어교회’ 교회론이 탄생시켰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디어교회는 4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다. 1단계로, 2009년부터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생략)‘선교적 교회론’은 찾아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게 한다. 만나교회는 이러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단계는 본격적인 온라인 교회의 시작으로 코로나19가 닥치기 2년 전쯤에 출발했다. 2018년 4월, 만나교회는 ‘미디어교회’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교회를 설립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넘어 ‘예배와 돌봄’을 위한 사역으로 진보하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교회론이 없었다면 아마 쉽게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만나교회는 ‘담장을 넘어라!’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복음을 교회 안 담장에 가두지 말고, 교회 밖으로 넘어가게 하자는 영적 운동의 시작이었다. 교회에 모일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만나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지 2년여 만에 이제 이들은 ‘교회’를 이루었고, 공동체’를 이루었다. 함께 나누고 헌금하고 선교도 같이 한다.

3단계에는 교회 안에 ‘미디어동산’이라는 새로운 교구를 만들었다. 교회 안을 살펴보니, 교회 담장 너머뿐 아니라 만나교회 안에도 예배와 목양에 소외된 성도들이 있었다. 이들을 미디어동산을 통해 섬기게 되었다. 이 사역의 계기는 코로나19와 맞물려 발생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도 있었다.

4단계가 바로 온라인 교회의 출범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회의 대안이나 선교적 교회의 필요가 수요를 만들어 냈다면, 이제 전체 교회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고 목회를 시작하기로 선언했다. 이전에는 건물이 중심이 된 만나교회를 기반으로 설교했다면, 이제 그 구분이 사라진 것이다. 만나교회 자체가 선교의 대상이 되고, 선교의 대상인 만나교회가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이다. (p29-31)